



대외교역의 구조적 변화 관찰

1. 국가별 수출구조 변화 평가

- 국가별 수출구조는 전향적인 변화보다는 미세한 구조적 차이 발생. 대중국(+홍콩) 수출비중은 소폭 낮아졌고, 베트남은 소폭 상승.
- 대미국 비중은 2018년 12.02%에서 2021년 현재 15.21%로 상승. 대EU 수출비중 역시 2018년에는 9.54%였으나 2021년 현재 11.51%로 상승.
- 선진국향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중간재 성격의 수출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재와 소비재 성격의 수출 호조로 판단.

2. 품목별 수출 구조 변화

- HS code 4단위를 기준으로 미국향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은 2차전지로 구분할 수 있는 축전지임. 이어서 냉장고, 자동차/부품 순. 여전히 내구재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EU 수출에서 눈에 띄는 품목은 2차전지의 양극재 재료인 산화금속산염이 전년비 +308.0% 증가하여 대EU 수출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 이어서 선박, 면역물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

3. 3분기 수출에 대한 시각

-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던 2분기 대비 둔화.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13.5pt를 기록하면서 -7.5pt 하락.
- 향후 전망에 있어서 제조원가, 수출단가, 채산성 전망은 부진한 상황. 최근 물류비용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측면에서의 우려가 발생하는 중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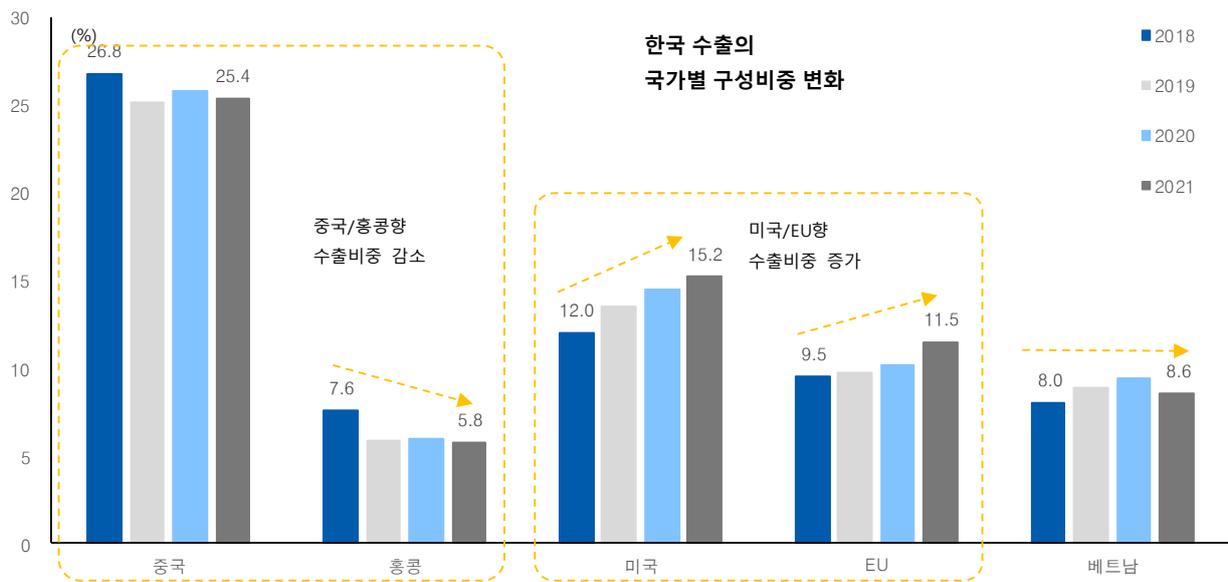
1. 국가별 수출구조 변화 평가

수출금액이 연간기준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한 2018년 이후 한국 수출대상국의 구성비중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 물론 국가별로 볼 때 수출대상 상위 8개국의 순위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향적인 변화보다는 미세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먼저 대중국(+홍콩) 수출비중은 2018년 당시 34.84%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5월까지의 수출비중은 33.92%로 소폭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한편 베트남의 비중은 8.04%에서 8.56%로 소폭 높아진 상황이다. 두 생산국의 수출비중은 큰 변화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대중국(+홍콩) 및 베트남향 수출비중의 변화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대미국과 대EU 수출비중이다. 대미국 비중은 2018년 12.02%에서 2021년 현재 15.21%로 약 3% 이상의 비중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 대EU 수출비중 역시 2018년에는 9.54%였으나 2021년 현재 11.51%로 상승한 것이 확인된다. 결국 선진국향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간재 성격의 수출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재와 소비재 성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차트1] 한국 수출의 국가별 구성비중 변화는 중국과 홍콩향 수출이 소폭 감소하고, 미국과 EU향 수출비중은 증가한 모습. 결국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수출구조로의 변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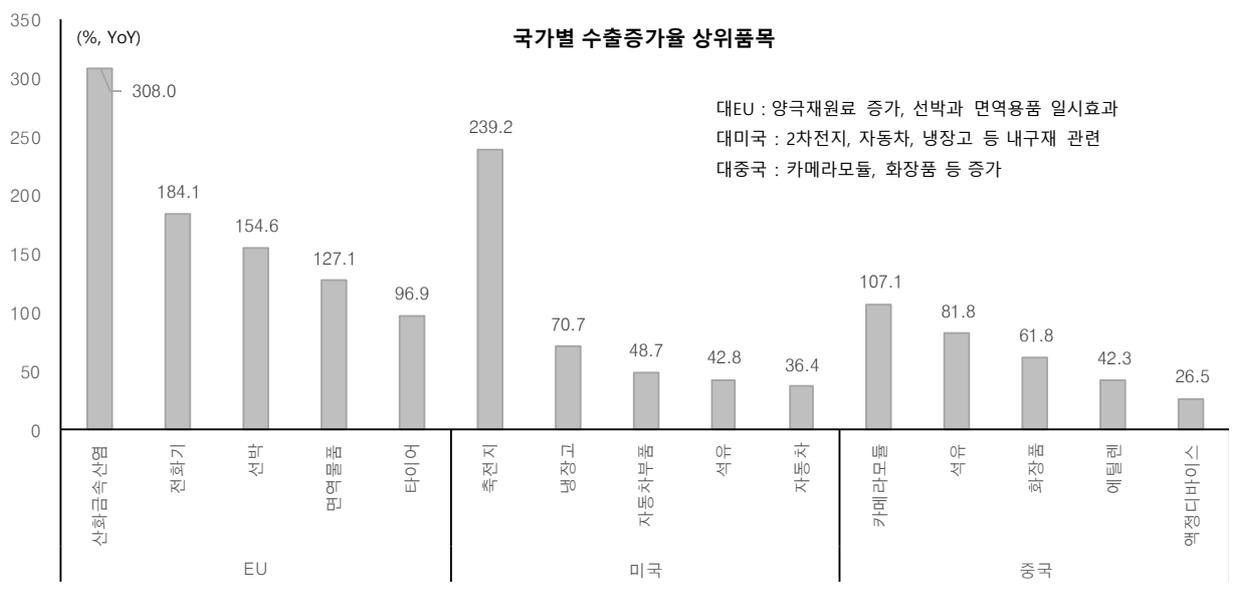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품목별 수출 구조 변화

품목별 수출 구조는 국가별 구조변화와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다. HS code 4단위를 기준으로 미국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한 것은 해상작업대(code 8905)로써 일시적 현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외한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한 품목은 2차전지로 구분할 수 있는 축전지(code 8507)로써 전년비 +239.2%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냉장고(code 8418)가 전년비 +70.7%, 자동차부품(code 8708) +48.7%, 자동차(code 8703) +36.4% 등을 기록하였다. 결국 최근 부각되는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를 제외하면 여전히 내구재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대EU 수출에서 눈에 띄는 품목은 HS code 2841인 산화금속산염이다. 이는 2차전지의 양극재 재료로 사용되는데, 동 품목은 전년비 +308.0% 증가하여 대EU 수출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 이어서 전화기(code 8517) +184.1%, 유조선/화물선 등 선박(code 8901) +154.6%, 코로나19 진단 등에 필요한 면역물품(code 3002) +127.1%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중국 수출에서는 화장품(code 3304) +61.8%를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2차전지 관련 수출을 제외하면, 대미국과 대EU 모두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수출 증가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트2] 품목별 구성변화로 볼 때, EU향 수출은 양극재 원료, 선박, 면역용품 등의 일시적 증가효과로 해석되며, 미국향 수출은 내구재의 여전한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대중국 수출은 카메라모듈과 화장품 위주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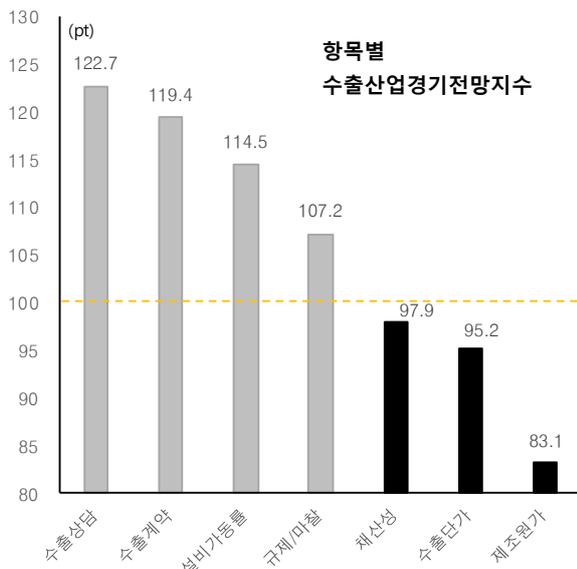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3분기 수출에 대한 시각

전반적인 한국의 수출금액을 보면, 2021년 상반기까지의 한국 수출은 전년대비 +26.1%를 기록하면서 3032.4억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월평균 기준으로 월간 500억불을 상회하는 실적인데, 현재의 기조대로 진행된다면 최근 수출액이 가장 높았던 2018년 당시와 유사한 수출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품목별로 볼 때, 2018년 당시의 반도체 편중의 수출 확대와는 다르게 전반적인 주요 수출품목에서 고르게 상승하는 상황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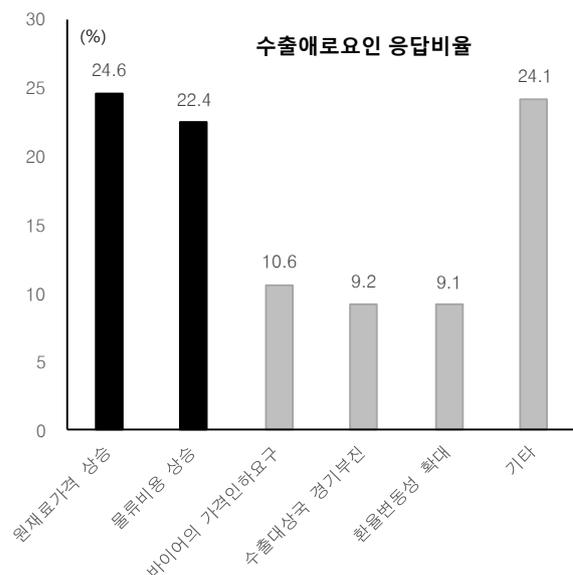
최근 각종 코로나19 변이의 유행에 의하여 향후 경제지표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수출과 관련된 전망에 있어서도 일선 수출기업의 전망수치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던 2분기 대비 조금 둔화된 모습이 확인된다.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13.5pt를 기록하면서 2분기 대비 -7.5pt 하락한 모습이 확인된다. 기저효과와 백신접종 효과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실제로 2분기까지의 수출실적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전망에 있어서 제조원가, 수출단가, 채산성 전망은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물류비용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측면에서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차트3] 수출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단가와 채산성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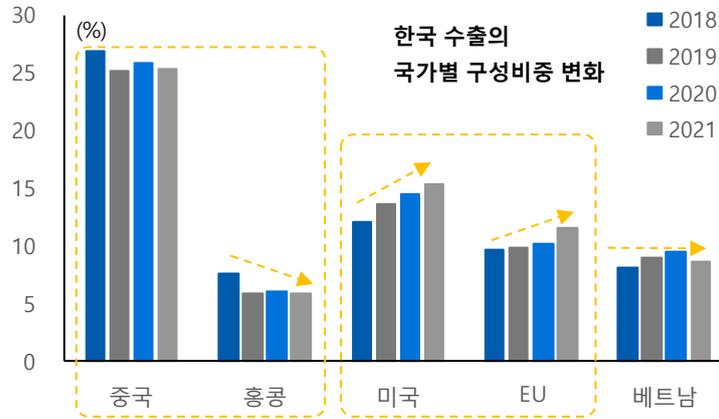
[차트4] 수출애로요인으로 언급되는 가장 큰 요인은 원자재가격과 물류비용 등 비용적 측면이 높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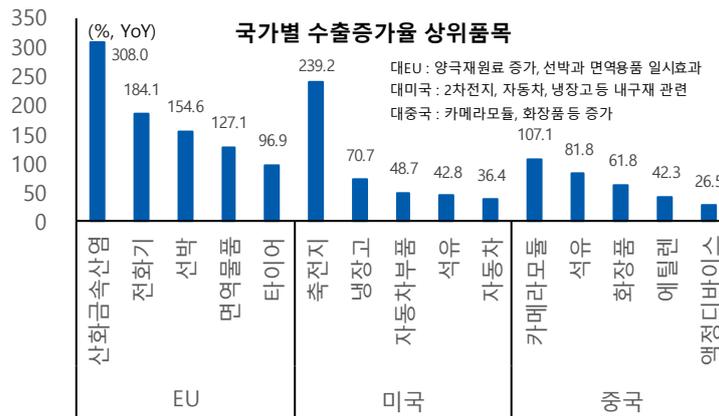
Key Chart

수출의 국가별 구성비중은 중국과 홍콩 감소, 미국과 EU 향 수출비중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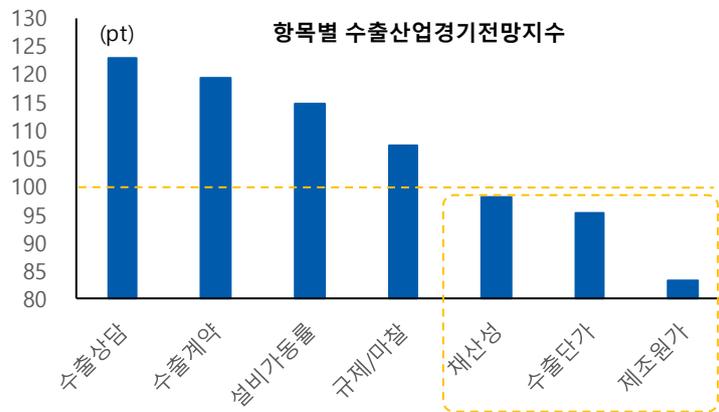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품목별 구성변화로 볼 때, EU 향은 양극재 원료, 미국향 수출은 내구재의 여전한 호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출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단가와 채산성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